

8월31일(월)/누가복음11:29-32

제목: 말씀은 비타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표적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표적을 요구하였다.(29절) 그러나 그의 수많은 표적을 보아왔 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빗대어 예수님은 말씀(전도)으로 안되면 표적으로도 안된다고 하셨다. 요나의 표적 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은(29절)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 의 전도만 듣고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건을 가리킨다. 기적 혹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 보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 일상에서 기적, 신비, 환상을 구하기보다 항상 말씀(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한다. 물론 표적이 우리에게 큰 에너지를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성서는 누구도 마음만 먹으면 손에 넣을 수가 있다. 그러나 누구도 읽기 싫어하는 책 중에 하나가 성서이다. 왜냐하면 어렵고 딱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읽고 겸손하게 응답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 하셨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하루의 말씀이 우리 영혼 보약이요 비타민이다. 갑작스럽고 흥분된 엑스타시 보다 하루 하루 말씀을 복용하는 삶이 바른 삶이다.

9월1일(화)/누가복음11:33-36

제목: 인격은 후천적입니다.

눈이 건강하면 몸은 필요한 모든 빛을 받아드리게 되고 눈이 병들면 그 빛도 어두워지게 된다(34절) 여기서 눈은 마음을 가리킨다. 마음의 건강 유무에 따라서 인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5절) 즉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지 늘 점검하라 하셨다.(35절) 마음은 항상 굳어지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마음은 습관과 인격을 결정짓는다. 우리가 처음으로 나쁜 짓을 하면 떨리지만 그것을 계속 반복함에 따라 우리는 거리낌 없이 그것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나쁜 습관과 인격을 만든다. 우리가 처음 선한 일을 할 때는 익숙지 않지만 그것을 계속 반복함에 따라 그것은 선한 습관이 되고 그리고 선한 인격이 된다. 그래서 사람은 의식적으로 선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의식적으로 선을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그 틀과 인격은 그쪽으로 바뀌어져 있다. 하루를 시작 할 때 내가 오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할지 그 목록을 잘 정리해보자. 그렇게 매일 의식적으로 선을 훈련하고 연습하다보면 인격은 바뀐다. 인격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온다. 인격은 후천적이다.

9월2일(수)/누가복음11:37-41

제목: 버리고 나와야 변화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였다.(37절) 이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립양상을 볼 때 파격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금방 불쾌해 졌다. “이상히 여겼다” (38절)는 것은 구약의 율법적 기준으로 볼 때 그러했다는 뜻이다. 이 사실을 안 예수님은 따끔한 충고를 하셨다. 즉 외적으로는 경건하지만 속에 탐욕과 불결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의 내면을 꼬집으셨다.(39절)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뜻이셨다. ‘내면’ 이 중요하다는 말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새 시대의 언어였다. 그 바리새인은 유대교적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란 불가능하였다. 새 역사, 새 시대를 맞이하게 위해서는 과거의 선입관,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자기만의 독특한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듣는다 한들 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예수님 없는 선(先)지식, 조상 때부터 내려온 비기독교적 가치관, 과거에 책임감 없는 지도자에게 주입받았던 신학 등을 버려야 한다. 버려야 새 시대로 들어 갈 수 있다.

9월3일(목)/누가복음11:42-44

제목: 형식도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소독이 생길 때도 그것의 십일조를 따로 바쳤다. 이 하찮은 식물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십일조를 따지는 그들의 형식주의는 참으로 대단하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근본정신인 공의와 사랑은 망각하였다.(42절)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42절)하셨다. 이것은 율법의 근본정신인 공의와 사랑을 가리키며 저것은 박하와 운향과 채소로 대변되는 형식주의를 가리킨다. 예수님은 공의와 사랑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서의 형식과 제도도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교단과 교회가 정한 법을 잘 지키는 것, 그 교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것, 예배를 순서나 형식에 맞추어서 잘 드리는 것, 교회서 정한 제도와 질서에 순응하는 것, 중대 사안을 합법한 절차나 회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 등은 중요하다. 예수님은 실리만 따지고 형식을 무시하는 자유주의자가 되라고 명하지 않으셨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유만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무교회주의로 가야한다. 예수님은 ‘실리’ 와 함께 ‘형식’ 도 강조하셨다. 교회 안에서 예절, 예법, 절차도 중요하다.

9월4일(금)/누가복음11:45-54

제목: 신령하다는 성경해석자를 조심하세요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율법사들에게도 이어졌다.(45절) 율법사들은 성경 해석자 및 교사였다. 예수님은 율법사들을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우는 자로 규정하셨다.(46절) 어려운 짐이란 율법사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만든 각종 까다로운 규범을 가리킨다. 그들은 성경 해석을 통해서 장난을 쳤다. 그것은 그들의 선배 율법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도 성서를 멋대로 해석하여 당대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다.(47-48절)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졌지만(52절) 그것을 악용했다. 그들은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여러 조문을 만들었다. 성서를 해석하는 자들은 이 장난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성찰해야 한다. 요즘 정규교육을 받지 않고 신학과 원어를 전혀 모르는 목회자들의 무지한 성경 해석에 신령하다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많다. 성도는 목회자가 성서를 건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학문적 토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한다. 왜냐하면 성서 해석은 신령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가 기록된 그 시대의 언어와 그 언어의 문맥과 그 문맥의 배경을 알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